

# 2015년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사업 리서치 결과\_주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지미연] 결과보고

□ 목 차

No.	구분	내용	page
1	정책 및 소식	보코하람 테러로 불안한 가운데 문화예술위원회 40주년 기념 국제공예박람회 열려	213
2		나이지리아 문화센터 및 타워(The Nigeria Cultural Center/Millenium Tower)건립 관련	213
3		Glo CAF Awards(아프리카 축구연맹 시상식)에서 아프리카 음악가들이 아프리카연합의 단결과 다양성 복돋아	214
4	공간	Cyprian Ekwensi Centre for Arts and Culture	215
5		Muson Centre(School of Music)	216
6	축제 및 행사	ASEAN Film Festival 2015	218
7		5개국 국제미술교류전 The Art of Friendship III	219
8		National Theatre	220
9		JELLE BULTEN의 전시회 'Installation art'	221
10		엘리제 조약 기념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회	222

[정책 및 소식]

<b>정책 및 소식</b>	보코하람 테러로 불안한 가운데 문화예술위원회 40주년 기념 국제공예박람회 열려
<b>관련링크</b>	<a href="http://www.nannewsnigeria.com/international-arts-and-crafts-fair-can-promote-world-peace-perm-sec">http://www.nannewsnigeria.com/international-arts-and-crafts-fair-can-promote-world-peace-perm-sec</a>
<p>올해는 나이지리아 문화예술위원회(Nigeria's National Council for Arts)가 40주년을 맞는 해로 지난 9월 3일 아프리카 14개국 및 9개주에서 참가한 International Art &amp; Craft Fair가 열리고 있는 Art &amp; Craft Village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International Art &amp; Craft Fair는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계속되었다. 문화관광부장관 은케치 에젤로는 Art &amp; Craft Fair가 더욱 발전,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아프리카 연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세계평화를 홍보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박람회가 창의적 재능을 개발시키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자랑스러워했다.</p> <p>&lt;나이지리아 정세&gt;</p> <p>나이지리아는 올초 당선된 무하마드 부하리 신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10월 3일 수도 아부자 인근 지역에서 보코하람에 의한 폭탄테러로 22명이 사망하고, 북동부 Borno주의 Maiduguri에서는 자살폭탄테러로 14명이 사망, 10월 23일에도 연쇄자살폭탄테러로 55명 사망하는 등 테러위협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에만 보코하람 테러로 250여명이 사망했으며 정부 주요인사 주거지에 대해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보코하람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p> <p>무하마드 부하리(72)는 1983년 쿠데타로 집권해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국가기강을 세우는 캠페인을 벌여 한때 국민의 지지를 얻었으나 2년 만에 쿠데타로 쫓겨난 바 있는 전 군부 통치자로서 이후 4번의 대선 도전 끝에 30년 만에 올해 나이지리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하리는 선거운동 기간부터 당선 이후 내내 보코하람과의 전쟁을 다짐했으나 보란 듯이 보코하람은 활개를 치고 있고 그에 반해 정부는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내각구성도 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p>	

<b>정책 및 소식</b>	나이지리아 문화센터 및 타워(The Nigeria Cultural Center/Millennium Tower)건립 관련
<b>관련링크</b>	<a href="http://www.archidatum.com/projects/nigerian-cultural-centre-and-millennium-tower-studio-nicoletti-associati/">http://www.archidatum.com/projects/nigerian-cultural-centre-and-millennium-tower-studio-nicoletti-associati/</a>
<p>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2007년 총5억5천불을 투입하여, 아부자 시내 중심가에 17만 평방미터 규모로 획기적인 디자인의 문화센터 및 타워를 건축중이다. 문화예술센터, 밀레니엄타워 및 국립광장으로 이루어진 복합건물로 내부시설로는 공연장, 박물관, 갤러리, 문화센터, 호텔, 식당, 스포츠, 피트니스 센터, 식물원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170미터 높이의 전망대 타워가 있어 아부자 시내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을 예정이다. 100미터짜리 투명 유리 모양의 구조물 3개가 타워를 감싸고 있어 타워가 Osogobo 숲의 꽃의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p> <p>연방정부의 예산조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약 30%의 공정으로 당초 예정된 2016년경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정책 및 소식	Glo CAF Awards(아프리카 축구연맹 시상식)에서 아프리카 음악가들이 아프리카연합의 단결과 다양성 복돋아
관련링크	<a href="http://leadership.ng/entertainment/491228/glo-caf-awards-top-musicians-bond-african-unity">http://leadership.ng/entertainment/491228/glo-caf-awards-top-musicians-bond-african-unity</a>

지난 1월 7일 아부자 국제회의장에서 아프리카 축구연맹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축하무대로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뮤지션들과 댄서들이 대거 출연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양한 음악과 춤으로 단결과 다양성을 선보여 시상식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가나의 뮤지션 Shatta Wale 및 모로코의 Ahmed Soultan 등이 나이지리아 보컬 Ego Ogbaru 및 Korede Bello 등과 듀엣으로 노래를 선사하고, Bez와 King Sunny Ade 등은 전자악기 연주를, 말리에서 온 Salif Keita 또한 나이지리아 음악가들과 월드뮤직을 선보이는 등 이날 시상식장은 공연장을 방불케 했다. 상원의원이며 전 장관인 Sanusi Dagash는 시상식을 주관한 Globacom의 회장인 Dr Mike Adenuga Jr에게 스포츠만을 지원한 것이 아닌 나이지리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나이지리아 발전의 받침대 역할을 했다고 칭찬했다.

[공간]

공간명	Cyprian Ekwensi Centre for Arts and Culture		
유형	문화공간	장르	복합



**Cyprian Ekwensi Centre for Arts and Culture**

1991년에 지어졌으며, 당초 FCT(연방수도 특별자치구) 문화예술위원회 회관(FCT Council for Arts and Culture Complex)이었던 이 공간의 이름은 2008년 11월에 나이지리안 풍자작가이자 단편 및 동화작가였던 시프리안 오디아투 두야카 이웬시(Cyprian Odiatu Duaka Ekwensi(1921-2007))의 사망 1주년을 기념해 그의 이름을 따 공간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도시사회를 풍자하는 단편작가로, 동화작가로 수많은 창의적 작품을 집필했던 시프리안 이웬시는 나이지리아 국가의 문학적 예술적 잠재성을 확인시키고 젊은 작가들에게 창조적 열망을 고취시킨 공헌으로 사망 1주년이던 2008년 11월에 당시 나이지리아 FCT 장관이었던 Dr. Aliyu Modibbo Umar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그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현재 아버지 문화예술회관으로 알려진 시프리안 이웬시는 나이지리아 문화예술 발전과 보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1층 연회장을 비롯, 회화 및 조각, 도자기, 패브릭 등 2,0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갤러리, 도서관, 역사박물관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도자기 가마, 염색, 실크스크린, 목공예, 음악스튜디오 등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공간들이 빌리지 형태로 들어서 있다. 학생들을 위한 강좌도 개설되어 있는 등 문화예술복합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주정부의 관리비용 태부족으로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하다. 아티스트들 작업공간은 우리나라 입주작가 형태처럼 1년~2년 단위로 작가의 활동을 심사해 사용허가를 내준다고 한다. 로비공간은 북한의 사진전이 상설전시 되고 있어 흥미롭다. 매월 사진을 교체한다고 한다.

오픈: 8:00am~6:00pm(월~금), 10:00~4:00pm(토)

주소: Area 10 Garki Abuja, Nigeria





공간명	Muson Centre(School of Music)		
유형	복합	장르	문화공간



### Muson Centre

주소: Address: 8/9 Marina , Onikan, Lagos State

전화: +234 815 888 6141

홈페이지: [www.muson.org](http://www.muson.org)

### The MUSON School



MUSON Centre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음악학교 겸 지역사회 이벤트공간이기도 하다. 1989년에 어린이들과 음악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악기를 배우는 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클래식음악에 중점을 둔 음악교육을 지향하며 음악연주와 이론교육의 어린이교육을 강조하는 음악학교 The MUSON School로 자리잡았다. 나이지리아와 非나이지리아 음악인들 간의 상호이해를 돕고 음악인들을 위한 악기들과 시설을 제공하며 펀딩

사업도 하는 이곳은 음악교육을 위한 기본과정과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수업은 연주가 기본으로 각 학생들은 실내악 앙상블 및 솔로연주회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MUSON Centre는 지역공간으로서 수많은 행사, 시상식, 콘서트 등 지역엔터테인먼트가 열리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Tel: (+234) 0807 819 2557, (+234) 0807 819 2586, (+234) 0807 819 2580

Email: [school@muson.org](mailto:school@muson.org)

### MUSON 심포니 오케스트라(MSO)



2006년에 40명의 단원들과 함께 설립된 MUSON 심포니 오케스트라(MSO)는 Paul Konye의 지휘아래 같은 해 첫 데뷔 콘서트를 했다. 오케스트라의 창립은 MUSON Centre의 예술발전계획사업의 주요 업적이었다. 이 MUSON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나이지리아 유일의 전문 심포니 오케스트라이며 아프리카 음악을 미국을 거쳐 유럽에서 다양한 레퍼토리로 발전시켜 높은 수준의 연주를 선보인다. 예술감독이자 지휘자인 Thomas Kanitz를 만나 더욱 성공적인 공연을 선보였는데 독일에서 6개월간 3차례나 연주를 하며 호평을 받았다.





### The MUSON Choir 무손 합창단

MUSON 예술가 위원회 회원이었던 Francesca Emmanuel과 Emeka Nwokedi가 1999년에 합창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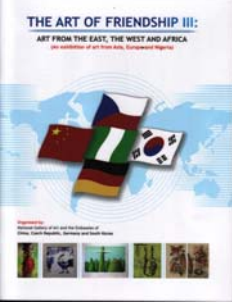
영구그룹으로 설립해 매년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하며 MUSON Festival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ASEAN Film Festival 2015		
유형	축제	장르	영화
 <p><b>ASEAN COMMITTEE IN ABUJA</b></p> <p>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공동체로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분할과 전쟁에서 보호하고 지역적 평화와 안정, 경제적 균형발전을 위해 1967년 태국에서 창설되었다. 아세안은 유럽연합처럼 단일 공동체를 지향하며 법적 독립체가 되어 하나의 자유무역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한다. 1997년 아세안은 더 나은 경제의 통합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아세안+3이라는 협동포럼을 설립했다. 전 세계에 주재하는 아세안 국가들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협력과 문화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p> <p><b>ASEAN Film Festival 2015 (10월 7일~14일 / 주나이저리아 한국문화원 스튜디오)</b></p> <p>아세안 국가 중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5개국은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정보교류 및 외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아세안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영화제를 아부자 소재 한국문화원 스튜디오에서 개최하기로 하여 한국을 초청국으로 한 '아세안+한국' 영화제로 기획되었다. 영화제는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많은 부분 주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각국 대표 영화는 이번 영화제가 지향하는 무폭력, 무인종차별, 무선정성 등 3Clean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p> <p>개막일 뿐 아니라 상영일에도 각국이 고유의 음식을 준비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각국 대사들이 영화제기간 내내 관람을 와 눈길을 끌었다.</p> <p>아세안영화제는 10.7 개막작으로 인도네시아의 'Filosofi Kopi'를 시작으로, 10.8 베트남의 'The Scent of Green Papaya', 10.9 말레이시아의 'The Journey', 10.12 태국의 'Pee Mak', 10.13 필리핀의 'Sonata'가, 10.14 폐막작으로 윤종찬 감독의 한국영화 '파파로티'가 상영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Filosofi Kopi&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출품작</li> </ul> </li> <li>* &lt;The Scent of Green Papaya&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3년도 칸느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li> </ul> </li> <li>* &lt;The Journey&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제17회 국제청소년영화제 출품작</li> </ul> </li> </ul>	  		



축제/행사명 유형	5개국 국제미술교류전 The Art of Friendship III		
	전시	장르	미술
 <p data-bbox="427 667 944 703"><b>일시: 2015년 10월 20일~27일 9:00~16:00</b></p> <p data-bbox="427 712 799 748"><b>장소: FCT Exhibition Pavilion</b></p> <p data-bbox="427 797 1428 958">'The Art of Friendship'은 아부자 소재 각국 대사관이 해당나라를 대표하여 문화 예술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전시를 개최하며 이번이 3회째이다. 나이지리아의 국립미술관에서 주관해 추진하며 올해는 한국, 나이지리아, 독일, 체코, 중국이 참가하였다.</p> <p data-bbox="172 967 1428 1128">2012년에 처음 개최되어 매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각국의 호응도도 크지만 해마다 자국의 작품들을 나이지리아까지 운송해 전시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도 우크라이나, 스페인, 이태리, 일본 등이 참가를 희망하였으나 작품운송의 어려움 및 예산 부족으로 참가를 포기하게 되었다. 주제국인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3회모두 참가하게 되었다.</p> <p data-bbox="172 1137 1428 1214">개막식에서는 각국을 홍보하는 3~5분내외의 동영상 약 20분간의 상영되었고 각국 대사들 및 은케치 엘레제(Nkechi Eleje) 나이지리아 문화관광부 차관의 축사가 있었다.</p> <p data-bbox="172 1223 1428 1299">참가국 이외에도 태국, 자메이카, 멕시코,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대사 및 총영사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p> <p data-bbox="172 1308 1428 1384">5개 국가에서 도자기, 회화, 조각, 목판화, 석판화 등 각국의 특색을 나타내는 총 85점가량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한국은 대표 민화작가의 작품 15점을 전시하였다.</p> <p data-bbox="172 1393 1428 1509">전시작품은 송창수 작가의 '금강산도', 손유영 작가의 '꽃과 새', 이해연 작가의 '책가도', 권성녀 작가의 '기물과 연꽃' 등 15여점이다. 전시된 '민화' 작품들은 한국의 전통 종이(한지) 및 삼베 위에 천연재료의 수채물감으로 그린 것으로 한국적인 정서가 잘 표현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p> <p data-bbox="172 1518 1428 1594">리셉션에는 참가국별로 3가지 이상의 고유음식이 제공되어 미술작품만큼 많은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으며, 한국은 잡채, 김밥 및 불고기를 선보였다.</p> <p data-bbox="172 1648 938 1684">2012년 1회 참가국 - 한국, 나이지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p> <p data-bbox="172 1693 912 1729">2014년 2회 참가국 - 한국, 나이지리아, 프랑스, 이태리, 체코</p> <p data-bbox="172 1738 861 1774">2015년 3회 참가국 - 한국, 나이지리아, 체코, 독일, 중국</p> <p data-bbox="172 1783 306 1818">* 관련기사</p> <p data-bbox="172 1827 1286 1863"><a href="http://nationalmirroronline.net/new/art-of-friendship-tool-for-development-says-maku/">http://nationalmirroronline.net/new/art-of-friendship-tool-for-development-says-maku/</a></p>			





축제/행사명	National Theatre		
유형	복합	장르	문화공간



**National Theatre Nigeria 나이지리아 국립극장**

나이지리아 문화예술 랜드마크인 국립극장은 상업도시인 Lagos의 중심부 Iganmu지역에 위치해 있다. 23,000평방미터의 크기에 31미터 높이로 1973년에 불가리아 건설회사 Technoexportstroy가 불가리아의 Varna에 있는 문화스포츠 정보센터를 그대로 본따 착공했다. 1975년부터 사용은 되었지만 나이지리아 올루세군 오바산조 장군이 대통령으로 있던 1976년 9월30일에 공식 오픈되었다.

극장이라고 이름붙여져 있으나 시설은 극장다움에 크게 못미치며 영화 및 행사를 위한 강당이나 컨퍼런스룸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극장 극장주변의 땅을 호텔이나 쇼핑몰,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을 운영할 민간에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한때 극장이 곧 호텔로 바뀔꺼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공간현황**

- 1. Conference/Banquent Hall 1,500석
- 2. 전시실 2개

EMAIL: [info@nationaltheatreng.org](mailto:info@nationaltheatreng.org), [cc@nationaltheatreng.org](mailto:cc@nationaltheatreng.org)

홈페이지: [www.nationaltheatreng.org](http://www.nationaltheatreng.org)



축제/행사명	JELLE BULTEN의 전시회 'Installation art'		
유형	미술	장르	전시
<p><b>JELLE BULTEN</b></p> <p>네덜란드 작가 JELLE BULTEN의 설치미술 전시가 네덜란드 대사관의 후원으로 아부자의 피라미드 갤러리에서 26일까지 열렸다.</p> <p>JELLE BULTEN은 주로 일상적 삶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에 그것을 그림으로 또는 설치물의 형태로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신이 만든 그 이야기가 작품이 작품 스스로 더 많은 이야기를 생산해내는 것이다.</p> <p>이번 전시에서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색다른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Installation art란 이름으로 설치작품을 전시했다. 그는 2개월간 아부자에 머무르면서 아부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공동벽돌로 쌓은 벽에 관심을 가졌다.</p> <p>Installation art의 설치작품에서 공동벽돌과 철판 슬레이트 지붕자재, 폐나무 등을 이용하여 건축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안과 밖의 경계를 없애는 의미를 담고자 했으며 나이지리아 석공, 목수, 택시운전기사 등의 사람들과 같이 작업했다.</p> <p>&lt;전시일정&gt;</p> <p><b>일시: 2016년 1월 16일~26일</b></p> <p><b>장소: 아부자 피라미드 갤러리</b></p> <p><b>EMAIL: jellebulten@gmail.com</b></p> <p><b>홈페이지: www.jellebulten.com</b></p>			<p>주나이지리아 1월 16일부터</p> <p>흥미를 가지고 한다. 그가 완성되면 어느새</p>
			
			



축제/행사명	엘리제 조약 기념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회		
유형	영화	장르	애니메이션

**The Élysée Treaty**



엘리제 조약(the Élysée Treaty)은 프랑스와 독일이 1963년 1월 22일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맺은 독일-프랑스 화해협력조약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좋은 편이 아니었다. 나폴레옹 3세 당시의 보불전쟁과 제1차·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양국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1963년 프랑스의 드골대통령과 서독의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는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연다는 내용을 담은 프랑스와 독일 간의 화해·협력조약을 맺었다.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서명됐기 때문에 엘리제조약이라고 불린다.

올해로 53주년이 되는 지난 22일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라고스 독일문화원인 괴테인스티튜트와 아부자 프랑스 문화원인 프렌치인스티튜트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행사는 야외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프랑스와 독일 두 국가의 애니메이션 영화 1편씩을 각각 상영하였으며 이어 칵테일파티, 전자음악 연주 등으로 구성되었다.



독일영화는 종이인형 군인들이 전쟁의 참극에서 입은 상처를 우편배달부가 전한 편지로 치유하는 내용을 담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상영했으며, 프랑스애니메이션은 스페인으로 불법이민하는 과정에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의 내용을 펜으로 그린 그림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작품 "Miniyamba"를 상영했다.

일시: 2016년 1월 22일 6:30pm

장소: French Institute Abuja

홈페이지 : <http://www.institutfrançais-nigeria.com/french-german-friendship-2>

